

농어촌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전환, 농어촌공사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미디어전략팀 기자 cbnews365@naver.com

기사입력 2025.11.26 15:22:36 최종수정 2025.11.26 15:22:36



▲ 전승민

- 한국농어촌공사 총주제천단
양지사장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국가적 과제가 됐다.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농어촌은 더 이상 에너지 소비의 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고 있다.

우리 공사에서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지사에서는 관내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농촌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기존 농지나 산림의 훼손 없이 수면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물의 냉각 효과를 통해 높은 발전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수질 온도 상승 억제, 녹조 저감 등 환경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 농어촌 친화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는 지역과 이익을 함께 나누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이런 정책 방향은 농촌 경제 활성화, 지역 소득 기반 확충,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공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농민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아래 주민 참여형 수상태양광사업 모델을 발굴해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이익은 다시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 재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창출된 이익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된다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보전, 지역 정서와 경관, 주민 수용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이에 우리 지사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화 함께하는 친환경 사업 모델을 확립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환경·경제·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 농어촌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플랫폼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녹색성장의 출발점이다.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중요한 공간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우리 공사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재생에너지 사업을 조화롭게 결합해 탄소중립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

농촌의 에너지 전환이 곧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기, 우리 지사에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형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